



국내 양계업의 현실과 종계의 선택

최 민 용

〈바브록농장(주) 대표이사〉

최근 석유문제는 더욱 그 심각성을 더하여 우리들의 생활을 위협하게 되었다. 우선 석유 휘발유, 중유등의 부족은 우리나라와 같이 총발전량의 91%가 화력발전이 의존하는 국가로서는 앞으로 전력의 부족현상을 초래할지도 모르며 이것이 양계업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육추에는 계분발효열의 이용이 부활하고 무창계사는 모두 개방계사로 되고 부화업에서 자가발전기를 사용하게 되고 부로일러의 육성비는 증대되어 채산이 맞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수송비의 양등은 지가(地價)나 노임 시설비 등면에서 유리했던 지방생산을 크게 불리하게 될 것이다. 이와같은 사태는 결국 계란이나 닭고기의 생산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2년전만해도 우리나라에서는 200개소가 넘는 부화장이 전국에 산재 하였고 각 부화장은 소수사육의 부업양계장을 상대로 영위되어 왔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전국에서 부화기를 가동하고 있는 부화장은 불과 30개소도 못되며 이에 비례하여 양계호수도 현저하게 줄어 과거 우리나라 양계형태의 대중을 이루던 부업양계는 거의 그 자취를 보기 힘들게 되었고 이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이는 결국 양계에서 얻어지는 소득이 낮고 경영이 힘들게된대기인한다. 그리하여 소득을 높이기 위한 규모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소숫수 대규모경영으로 되어가고 있다. 그리하여 이를 경영의 합리화라고 부르고 있다.

이와같은 사태에 다시 작년부터는 사료의 수반이 겹쳐 배합사료 가격은 몇번이나 인상되고 명년에는 다시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

고 한다.

이와같은 수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양계가는 이 어려운 현실속에서 자기만은 살아남고저 혹심한 경쟁을 전개하게 된다.

그 결과 경쟁에서 진 사람은 다년간 종사하여 온 양계업에서 탈락되는 곤욕을 감수하게 마련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부가 도입하는 사료원료를 배정받아 배합사료를 제조하는 사료제조업자는 원료가의 인상폭은 제품인 배합사료가격에 부가하거나 사료의 품질을 떨어뜨림으로서 유지해 나갈 것이며 동물약품업자 역시 같은 경우가 될 것이다. 이같은 사료업자나 동물약품업자의 경영유지는 양계가의 피땀어린 생존경쟁의 결과로 얻어진다. 요즈음은 일반양계가의 강적으로서 다시 재벌기업의 양계사업에 대한 투자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재벌이 타기업에서 생기는 이윤의 축산사업으로의 투자분에 대해서는 이를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베풀게되자 그 진출도 점차 가속화되어 가고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어려운 여건을 결정지어주는 것은 계란가격인바 양계가의 운명은 난가(卵價)에 달려있다고 본다. 이와같은 시점에서 양계가는 자기만이 살아남고저 하는 식의 생각을 버리고 다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야 되며 서로의 힘을 합하여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 나가야 할때 인줄 안다.

앞에 말한 난가를 말함에 있어서는 계란의 가격이 일정선 이상의 소비자가격을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나 이 일정선이라는 것은 생산비에 적정한 양계가의 이윤을 합한 가격인 것이며 이 적정난가형성을 용이하게 함에

는 여러가지 여건이 있겠으나 우선은 각 양계가 사육하는 닭의 능력이 생산비와 시중난가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선에서 형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금 우리들이 사육하고 있는 닭은 거의 95%가 외국의 고도로 개량된 닭으로 그 능력은 최근 대한양계협회가 시행한 산란계경제능력검정결과로 볼 때 산란면에서 헨하우스산란지수 최고 253~241이며 사료효율에서 2.62~2.83이다. 또 조수익에서 년 1수당 1,223원~1,037원인바 이같은 고능력의 닭으로도 가혹한 사료가격과 경영비에 대항하기 힘들어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과거 10여년간 우리나라는 매년 산란용종계를 외국에서 200,000수 내지 300,000수리 도입하여 왔으며 이에 소요되는 외화가 연간 400,000불~700,000불에 이르렀으며 이에따라 1973년초 정부는 외화의 절약을 감안 종계의 도입을 줄이는 방편으로 원종계(原種鷄)를 도입하도록 권장하였고 산란계 3~4품종이 이에 호응하였고 이로인한 외화지출은 연간 100,000불 정도로 과거 종계를 수입하던 때에 비하여 약 1/5이 가능케 되었으나 이를 위하여 작원종농장이 지출한 자본투자는 엄청난 것이었다. 이들 원종농장이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는 데는 적어도 향후 5년~8년은 소요될 것으로서 이는 정부나 양계업계를 인정하고 그에 적합한 시책이 뒤따라야 마땅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정부는 원종계도입을 권장한 같은 해인 1973년말에 돌연 전면적인 외국계도입중지방침을 시행하였고 그대신 국내에서 외국계를 토대로 만든 소위 국산계의 사용을 장려하기로 한 것은 전기 원종농장들의 희생은 강요한 것이라 하겠다. 물론 국산계가 모든 능력면이나 양계수익 양면에서 외국계에 필적하거나 그를 능가한다면 국민된 도리로서 납득이 가고 이에 순응해야 하겠으나 그렇더라도 이같은 시책은 과거 원종계도입을 권장한 입장에서 볼때 단계적으로 어느 한 쪽의 희생을 더는 방법을 취했더라면 하는 것이다. 지금 전국의 양계가가 모두 외국계를 희망하는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월간양계지(대한양계협회발행)

11월호에서 볼 때 백색 산란계는 도입원종에서 생산분양된 종계가 8월말 현재 126,000수인데 비해 소위 국산계 백색은 4,200수 갈색 3,710수로서 외국계대 국산계의 분양실적은 100:6.3, 즉 6%에 불과할 것이다.

여기서 국내에 원종계가 도입돼있는 외국계 3계품종과 소위 국산계의 능력을 앞에말한 양계협회의 금년도경제능력검정 결과로서 비교하여 볼때 소위국산계는 산란지수 228, 사료효율 2.88이며 조수익년 1수당 905원으로 산란지수면에서 외국계평균 246개보다 18개 최고보다는 25개나 떨어지고 사료효율에서 2.88로 외국계평균 2.72보다 0.16 최고보다는 0.26의 차를 보였으며 조수익면에서는 905원으로 외국계 평균 1,105원보다 200원 최고보다는 실로 318원의 차를 보였다. 이것은 전국 채란성계의 연간 사육수수를 1,000만수로 잡을 때 실로 3,180,000,000원(31억)으로 된다 즉 채란계 10,000수를 사육하는 양계장의 경우 연간조수익 차는 3,180,000원이 되는 것이다. 이는 절대로 소홀히 보아 넘길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다.

이상에서 볼때 우리나라에서 양계업이 계속 발전하고 양계업자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경영을 지속하자면 우리는 아직도 소위 말하는 국산계의 전면사육의 시기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보아진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놓고 볼때 우선 닭의 품종면에서만 보더라도 앞으로 우리나라는 지금의 원종농장을 일정기간 육성하고 그들 원종농장이 그들이 갖고 있는 시설과 인적능력, 그리고 자본력을 이용하여 시한을 정해서 그들도 우수한 국내개량계를 빠른 시일안에 만들어내어 적어도 국내에서 2~3개 품종이 국내개량계를 가지고 타와의 경쟁을 하게 하여 앞으로 5년 또는 10년 후에는 명실공히 유능한 국내개량계가 보급되고 그 시기에는 외국계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면 이는 우리나라 양계업의 단계적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생각된다 또한 그러는 동안에 사료의 자원을 개발하고 사육기술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면 5년 10년후의 우리나라 양계는 비약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